

2023년 9월 17일 "(침례식)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롬 5:10-11)

침례식의 두 상징적 행동을 통해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침례식의 두 단계

(1) 물에 잠그다

예수님을 구주/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자기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물 속에 잠깁니다(롬 6:4 참고). 이 죽음은 하나님과 원수(반대자)가 되게 한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길입니다.

(2) 물에서 나오다

물에서 나오는 행위는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으로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산 것입니다.

[2] 새생명의 특징

(1) 죄로부터 해방을 가져오는 죽음(v.10 전).

예수님의 죽으심(십자가 보혈)을 통해 사람의 죄가 용서받고 처리되면 죄의 세력이 성도를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반대자)로 만든 죄의 세력이 무력화된 것입니다.

예: 베드로의 주님 부인(마 26:69 이하). 그의 마음에는 변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화목을 거스르는 자신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죄로부터 해방되어 얻은 새 양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생명으로(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얻음(성취의 측면)(v.10 후)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자는 약속의 성취를 향한 정진이 있어야 합니다. 애굽에서 어린양의 피는 출애굽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가나안 여정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었다면, 주의 살아나심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투신하는 적극적 삶이 요구됨을 의미합니다.

이 투신을 위한 원동력은 성화입니다. 성화란 주님을 닮는 기쁨의 사람으로 성숙(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성숙은 삶과 사역에 평안과 자유를 가져오며 좋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성도의 삶과 전인격적 변화를 이끌어줍니다. 침례식이 상징하는 물 속에서 죽고 물 밖으로 살아나오는 복음의 삶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과 말로 설명해 보세요.
2.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신할 때 핵심 원동력은 성화(성숙)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성화란 무엇이며, 어떤 열매를 약속받습니까?